

다산학 42호 (2023.6) | 205~222

『여유당전서 미수록 다산간찰집』(2)를 준비하며

박철상 | 한국문헌문화연구소 문학박사

1.

10년 전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는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문집에 실리지 않은 간찰을 찾아 정리하고, 탈초 및 번역과 함께 간단한 주석을 붙여 『여유당전서 미수록 다산간찰집』이란 이름의 책을 간행하였다. 일부는 이전에 소개되기도 하였고, 일부는 전시나 경매, 또는 책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지만, 처음 공개되는 것도 여럿이었다. 하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 열람이 너무나 불편했고, 이를 한곳에 모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모은 게 120통을 넘었다. 문집에 실린 다산의 간찰이 대략 220통인 점에 비추어 보면 적지 않은 분량이었다. 이들 편지는 하나같이 문집에 실리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이들 편지가 다산의 학문적 연구 영역을 넓혀주거나 새로운 사실을 새롭게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저 다산의 일상 틈틈이 남긴 그의 육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여겼다. 또한 시기별로 그의 서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도 가치가 있었다. 게다가 일자가 확인되는 편지의 경우에는 다산의 행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이제 『여유당전서 미수록 다산간찰집』이 간행된 지 10년이 흘렀고, 그 사이 또 많은 간찰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60통에 이른다. 그대로 둔다면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질 게 뻔한 일이다. 이에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는 1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들을 모아 탈초, 번역과 함께 간단한 주석을 붙여 『여유당전서 미수록 다산간찰집』(2)를 간행하려고 한다. 그에 앞서 그 경과와 함께 간찰 몇 종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이들 중에서 단연 주목을 끄는 것은 다음 간찰이다. 동일한 간찰첩에
첩장된 것인데, 해배 이후 다산이 자신의 저술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었
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들이다.¹⁾

요즘 어찌 지내십니까? 저는 마을에 전염병이 점점 심해지니 위
태로움을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거역巨役을 시작했
는데, 이전에 만든 2部의 책은 너무 엉성하다(掛一漏萬) 할 것입
니다. 제 생각에는 꼭 30권 10책으로 하려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
을까요? 점 하나 획 하나까지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끝내
는 완성하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죽은 뒤에 노형老兄께서는 틀
림없이 책을 어루만지며 슬퍼할 것입니다. 매씨梅氏의 간악한 것
은 25편만이 아니라, 원경原經 28편 안에도 무수히 어지럽혀 진장
眞贓이 모두 드러나니 장차 이를 어찌합니까? 너무도 통탄스럽습
니다. 어찌해야 이 괴로운 마음을 풀 수 있을까요? 갖추지 못합니
다. 갑오년(1834) 2월 8일 저녁에 척하戚下 배拜²⁾

1834년의 편지로 수신처는 '송애시인松厓侍人'으로 되어있다. 다른 편
지에는 '송현松峴'으로도 표기하고 있어 송애松厓는 송현松峴일 것으로

1) 졸고「다산(茶山) 저작 고본(稿本)의 제문제」(『다산학』 23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3)에서
일부는 소개 한 바 있다. 이 글 부분은 졸고에서 발췌한 것이다.

2) 數日來, 起居如何. 戚下, 村瘟漸熾, 危懼不可言也. 妄始巨役, 從前二部書, 可謂掛一漏萬.
意必以三十卷十冊, 將如之何. 一點一畫無助役之人, 畢竟未畢而死. 死後老兄必撫卷而悲
之耳. 梅氏作奸, 不唯二十五篇, 乃於原經二十八篇之內, 更亂無數, 眞贓皆露, 將如之何. 痛
歎痛歎, 何以則了此苦心耶. 姑不備. 甲午二月初八日夕 戚下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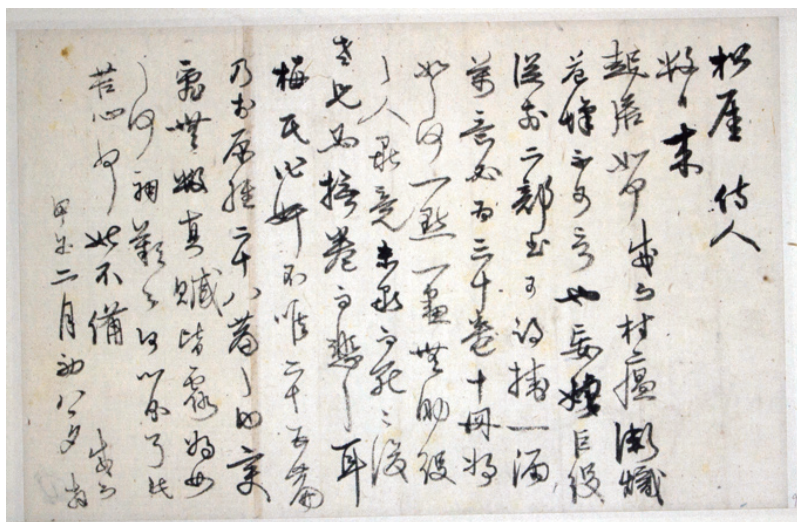


그림 1: 1834년 2월 8일 편지

보이는데, 누군지 확정할 수 없다. 다산은 이 편지에서 2부의 책이 너무 영성하여 30권 10책으로 다시 만들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다산이 말한 2부部의 책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뒤쪽의 내용을 감안하면 다산이 말한 책은 『매씨서평梅氏書評』과 『상서고훈尙書古訓』이 분명하다.³⁾ 이에 대해서는 『여유당전서』에 수록된 『매씨서평』에 첨부되어 있는 발문跋文을 보자.

이 『매씨서평』 9권은 옛날 경오년(1810) 봄(가경 15년)에 내가 다산 茶山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이다. 을(1834) 봄(도광 14년)에 내가 열상열上에서 『상서고훈』과 『상서지원록』을 가져다 합하여 한 부

3) 이에 대해서는 김문식, 「『상서지원록』 필사본의 원문 비교」, 『다산학』 10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07 참조.

部로 만들었는데 21권이다. 그리고는 『매씨서평』을 가져다 거칠고 번잡한 것은 산삭刪削하고 빠진 것은 증보하여 완성하였는데 예전처럼 9권이다. 2部를 합하면 모두 30권이다. 내 나이 올해 일흔 셋이라 눈은 흐리고 손은 떨리는데, 그래도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도움이다. (『매씨서평』 윗부분의 4권은 수년 전에 수정한 것이다.) 8월 14일 열상노인이 쓰다. (갑오년 가을)⁴⁾

이 발문의 내용은 앞의 편지에서 말한 2부의 책을 30권 10책으로만 들려한다는 다산의 말과 완전히 일치한다. 『매씨서평』은 고문상서 25편을 위주로 한 대 학자들의 주석을 정리한 것이고, 『상서고훈』은 금문상서 28편에 대한 학설을 모은 것인데, 『상서지원록』은 『상서고훈』에서 모은 주석을 매색梅賾, 채침蔡沈 등의 학설과 비교하여 다산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앞의 편지에서 ‘매씨梅氏의 간악한 짓은 25편만이 아니라, 원경原經 28편 안에도 무수히 어지럽혀 진장眞贗이 모두 드러났다’고 한 것은 바로 다산이 『매씨서평梅氏書評』과 『상서고훈尙書古訓』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다산은 저작을 정리하는 일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 날짜만 나와 있고 편지를 쓴 해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편지를 보자. <2월 20일 편지>이다.

4) 『梅氏書平』九, 「跋」(『定本』제13책, 314쪽). “右『梅氏書平』九卷, 昔在庚午春(嘉慶十五年), 余在茶山謫中作. 今年春(道光14年), 余在洙上, 取『尙書古訓』·『尙書知遠錄』, 合之爲一部, 共二十一卷. 既又取『梅氏書平』, 刪其蕪雜, 增其闕遺, 修而成之, 仍其舊爲九卷, 二部之合三十卷也. 余今七十三, 眼昏而手顫, 猶能爲此, 賴天之賜也(書平之上四卷, 是數年前所修正). 八月十四日, 洙上老人書(甲午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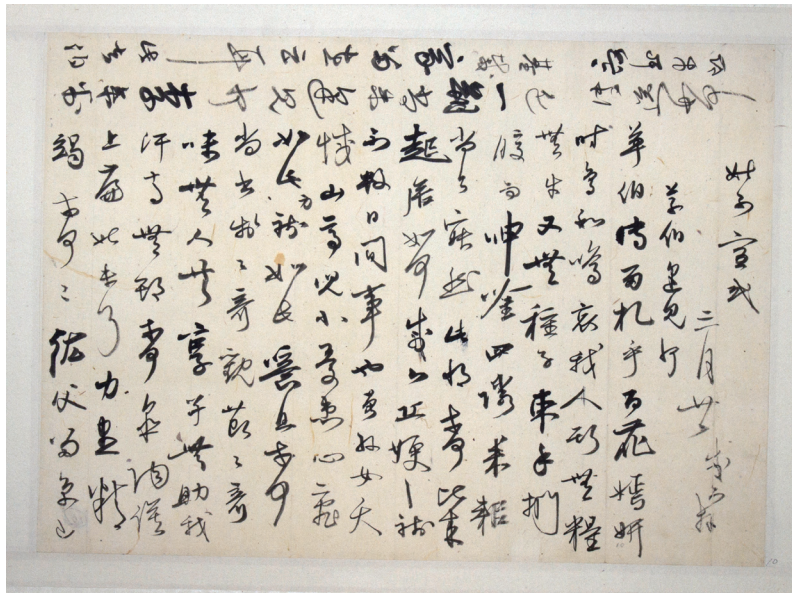


그림 2: 2월 20일 편지

『상서尙書』는 보는 곳마다 기이한 볼거리이고, 구절마다 기이한 맛이 납니다. 이런 걸 함께 누릴 사람이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 완성도 기약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고요모阜陶謨」상편上篇도 아직 마치지 못했는데, 힘이 다 빠져버렸으니 어쩌습니까? 평보絳父(李綱會의 字)가 서울에 머무른 지 1달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만나보지 못했습니까? 참판參判 이기재李基裁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백하伯夏(尹昌謨의 字)가 가지고 간 편지를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⁵⁾

5) 尙書步步奇觀, 節節奇味, 無人共享, 予無助我, 汗青無期, 奈何. 阜陶謨上篇姑未了, 力盡精竭, 奈何奈何. 絳父留京已近一朔, 尚未逢見耶. 李參判基裁家留在云耳. 此去伯夏書辛即傳送如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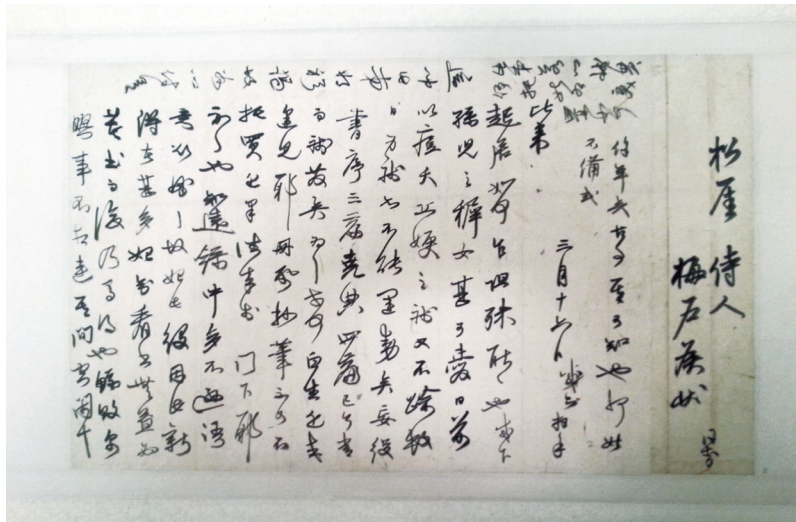


그림 3: 3월 16일 편지

이 편지에서도 『상서』를 정리하고 있는 다산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을 도와줄 사람이 없자, 서울에 머물고 있던 이강 회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다. 아마도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을 것이다. 다음은 〈3월 16일 편지〉이다.

『상서지원록尙書知遠錄』 중에는 어의語意가 불손不遜한 게 많아 산삭刪削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새롭게 얻은 게 매우 많았습니다. 책을 보는 것은 무익無益하고 반드시 저서著書를 해야 얻는 게 있다는 걸 비로소 알았습니다.⁶⁾

6) 知遠錄中多不遜語意, 欲刪之, 故始此役, 因此新得者甚多. 始知看書無益, 必著書而後乃有得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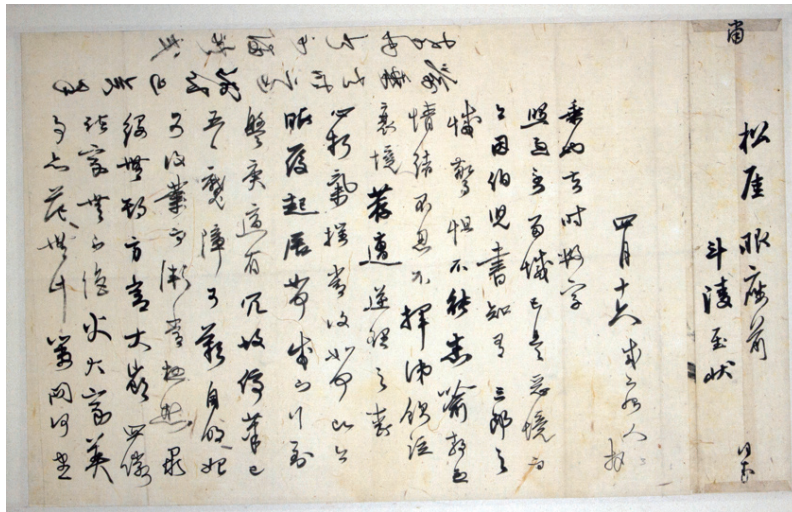


그림 4: 4월 16일 편지

앞의 발문에서 보았듯이 다산은 『상서지원록』과 『상서고훈』을 합쳐 『상서고훈』으로 편찬하는데, 처음에 다산이 『상서지원록』을 산삭하려고 했던 것은 ‘어의가 불손한 게 많아서였다’고 다산은 고백하고 있다. 다음은 <4월 16일 편지>이다.

「반경盤庚」에 이르러 마침 번잡스런 일이 생겼기에 붓을 멈춘 지 5일이 됐습니다. 악마의 방해가 안타깝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는데 점점 더위가 심해지니 일을 마칠 기약이 없습니다.⁷⁾

계속해서 『상서』를 정리하고 있다. <5월 1일 편지>에서도 여전히 『상

7) 行到盤庚,適有冗故,停筆已五日,魔障可歎.自明始可復業,而漸當極熱,畢役無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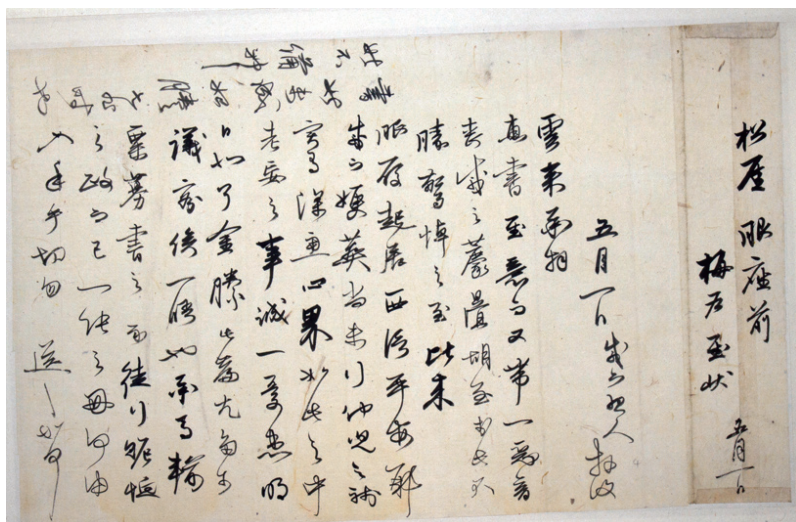


그림 5: 5월 1일 편지

서』를 정리하고 있는 다산의 모습이 등장한다.

형수의 장사葬事도 아직 치르지 못했는데 중아仲兒의 병증이 참으로 염려됩니다. 마음이 이러한 가운데 노망老妄한 일이 참으로 걱정입니다. 내일 「금등金騰」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은 더욱 의론議論할 것이 많습니다. 다음에 한 번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책은 아직 완성하지 못해서 등사謄寫를 시작하는 것은 또한 그때가 아닙니다.⁸⁾

『상서』「금등편金騰篇」을 마쳐가는데, 상대방이 저작의 등사를 요청

8) 嫂葬尙未行, 仲兒之病, 實有深慮, 心界如此之中, 老妄之事, 誠一憂患, 明日似可了金騰. 此篇尤多可議, 容俟一晤也. … (중략) … 書姑未成, 始謄亦非時也.

했던 모양이다. 다산은 책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사를 허락할 수 없다며 거절하고 있다. 이상의 편지는 모두 1834년의 것으로 보인다. 말년에 다산이 『상서』를 정리하는 데 얼마나 힘을 기울였는지 잘 나타나 있다. 이때 다산의 모습은 〈상서고훈발(尙書古訓跋)〉을 통해 다시 확인된다.

이 『상서고훈』²¹권은 내가 자료를 모으고 내가 엮고, 또 내가 손 수 베긴 것이다. 2월 2일에 시작하여 6월 10일에 마쳤다. 그사이 128일이 걸렸다. 처음에는 나 자신도 생각지 못했는데, 다행히 하늘의 도움으로 이제 죽기 전에 일을 마쳤으니 다행이다. 내 나이 73세인데 7월 뒤인 6월 16일은 내 생일인데, 다행히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마땅히 이 7책으로 자신을 축수한다. 순조 34년 6월 상순에 열수노인(洌水老人) 씀.(도광 갑오)⁹⁾

앞의 편지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글이다. 즉 앞의 편지는 『상서고훈』²¹편을 정리하던 때의 것으로 확인된다. 발문의 내용에 따르면 다산은 1834년 2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128일 동안 『상서지원록』⁷권과 『상서고훈』⁶권을 합하고 자신의 견해를 더해 21권 7책의 『상서고훈』을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다산을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산의 편지에 보이듯이 다산은 혼자서 그 모든 일을 감내한 것이다. 다산은 그게 너무도 고통스러웠던지 “내가 자료를 모으고 내가 엮고, 또 내

9)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二集經集第二十八卷, 「尙書古訓」卷七, 〈尙書古訓跋〉, 新朝鮮社, 1934~1938. “右尙書古訓二十一卷, 余所輯余所編, 又余之手鈔者也. 起工于二月二日, 告竣于六月十日, 其間一百二十八日, 始不自意, 賴天之佑, 今幸卒業于未死, 幸矣哉. 余齡七十三, 後七日六月既望, 余弧辰也. 幸而至是, 當以是七冊自壽之. 當寧三十四年六月上澣, 洌水老人書. 道光甲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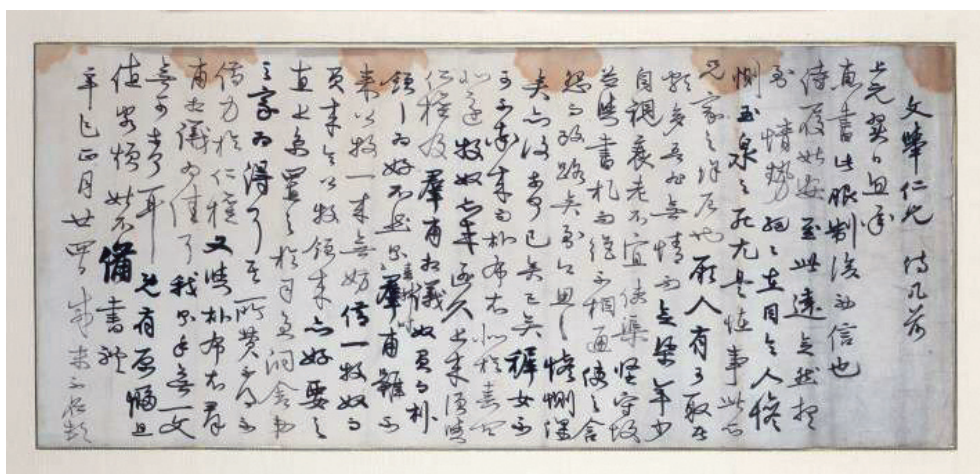


그림 6: 1821년 1월 24일 편지

가 손수 베긴 것이다.”(“余所輯余所編, 又余之手鈔者也.”)라고 기록을 남겨놓았다. 다산의 저술 중에서 이처럼 직접 자료를 모으고 베긴 책은 『상서고훈』이 유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1권 7책의 『상서고훈』이 남아 있다면 명백한 수고본手稿本이 될 것이다. 다산은 이로부터 두 달이 지난 8월 14일에 『매씨서평』에 발문跋文을 쓴다.

다음은 해배解配 이후 다산이 고향에 돌아와 1821년에 윤규로尹奎魯(1769~1837)에게 보낸 편지다. 그는 다산초당茶山草堂의 주인 윤단尹搏의 큰아들이다.

상원上元(정월 대보름날) 다음날 문득 보내신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상복을 입은 뒤로 첫 번째 편지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편안하시다니 이 먼 곳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생각이 그대의 사정과 형세에 미치니 하나하나 눈에 아른거려 사

람으로 하여금 참담하고 슬프게 합니다. 옥천玉泉의 죽음은 더욱 괴이한 일입니다. 이 또한 형 집안의 끝나지 않은 액운입니다. 그 사람에게겐 취할만한 게 꽤 많았습니다. 내가 무정해서가 아니라 그는 나이가 젊고 스스로는 노쇠하다고 여겨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굳게 지키도록 하는 게 마땅치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서찰을 썼지만 절대 서로 통하지 않았으니, 그로 하여금 원한을 품고 노선을 달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 무도 참담하고 슬픈 일이지만 또한 어찌겠습니까? 끝나버렸습니다. 끝나버렸어요. 어린 딸은 데려오지 않을 수 없는데 박희우朴希右 등이 봄에 북쪽으로 돌아오고 목노牧奴도 어찌면 오래지 않아 올라올 것이니 꼭 인권仁權, 군보群甫와 상의하여 사내중이 업고 박씨가 데려오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봄 과거 볼 때 군보群甫가 비록 오지 않더라도 공목公牧이 한 번 와도 무방합니다. 목노牧奴 하나를 빌려서 업고 오고 공목公牧이 데려오는 것도 좋습니다. 요컨대 곧장 상경하여 사창洞倉洞舍 아우의 집에 두면 됩니다. 그 경비는 어쩔 수 없이 인권仁權에게 힘을 빌리고 또 박희우朴希右, 군보群甫와 상의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수중에 한 푼도 없으니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미 원폭原幅이 있고 또한 손님이 와서 번거로우니 이만 줄입니다. 신사辛巳(1821) 1월 24일 척말威末 불명不名 돈頓.¹⁰⁾

10) 文學仁兄 侍几前,上元翼日,忽承惠書,此服制後初信也,侍履姑安,慰此遠念,然想到情勢,細細在目,令人慘惻,玉泉之死,尤是慘事,此亦兄家之餘厄也,厥人有可取者頗多,吾非無情,而念渠年少,自視衰老,不宜使渠堅守,故並與書札而絕不相通,使之含怨而改路矣,到今思之,慘惻深矣,亦復奈何,已矣已矣,婢女不可不率來,而朴希右等,於春間北還,牧奴亦或匪久上來,須與仁權及群甫相議,奴負而朴領之爲好,不然則春科時群甫雖不來,公牧一來不妨,借一牧奴而負來,令公牧領來亦好,要之直上京置之於司倉洞舍弟之家爲得耳,其所費不得不借力於仁權,又與朴希右群甫相議爲佳耳,我則手無一文,無可奈何耳,既有原幅,且值客煩,姑不備書

여기에는 군보群甫,¹¹⁾ 공목公牧¹²⁾ 등 다산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몇 가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등장한다. 이러한 편지들은 다산의 다른 편지들과 함께 읽어야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깊은 내용 파악이 어렵더라도, 훗날 다른 편지들이 함께 확인되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이 바로 다산의 간찰을 모으고 정리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다음은 1813년에 완호玩虎(1758~1826) 스님에게 보낸 편지다. 특히 이 편지에서는 다산이 ‘사암俟菴’이라는 자신의 호를 쓰고 있다.

서대西臺를 신축하고 아침저녁으로 올라가 조수를 보는데, 매년 연로蓮老(蓮潭스님)와 나산羅山에서 놀던 일을 쓸쓸히 바라봅니다. 보낸 편지에 유집遺集을 편찬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던데, 너무도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마침 기어자홍騎魚慈弘이 곁에 있으니, 그에게 초본艸本을 만드는 일에 힘을 쏟게 하면 기꺼이 수락할 겁니다. 초본艸本이 완성되고 나서야 비로소 정본正本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10여 장 베껴 사행使行에 부치려 한다면, 이 또한 초본艸本이 완성된 뒤에나 할 수 있습니다.¹³⁾

다산 초당에 서대를 신축하고 조석으로 올라가 강진만을 바라보며

禮,辛巳正月廿四日歲末不名頓。

11) 다산의 제자 윤시유尹詩有(1780~1833)의 자字.

12) 다산의 제자 윤종심尹鍾心(1793~1853)의 자字.

13) 新築西臺,朝夕登臨觀潮,每憶與蓮老同遊羅山,爲之悵望,書來以遺集事縷縷,不勝慚歎,今適騎魚弘在坐,使之效力於艸本,則欣然肯諾,艸本既完後始可議正本,然又方欲抄出十餘張以寄使行,此亦艸本成後乃可爲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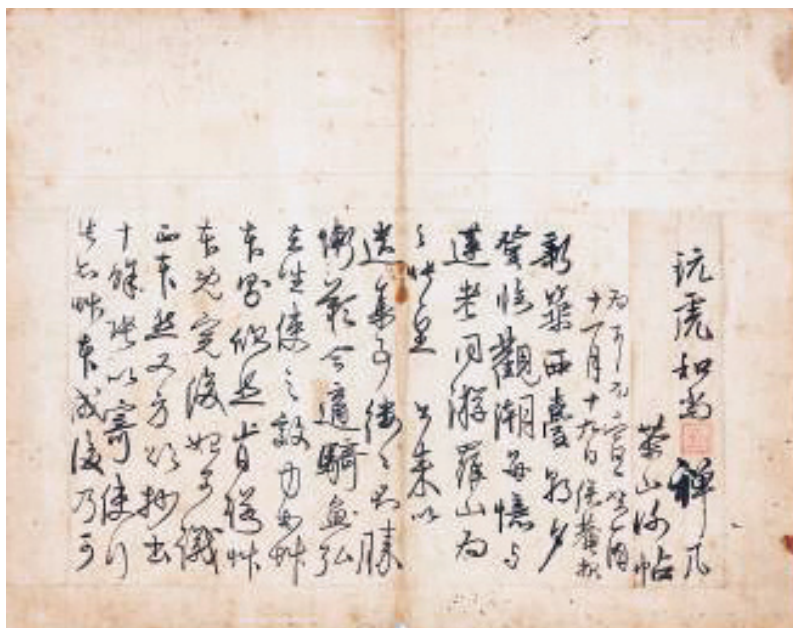


그림 7: 1813년 11월 19일 편지

조수潮水를 구경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완호가 부탁한 연담蓮潭 스님의 문집을 정리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특히 10여 장 베껴 청나라 사행使行 편에 부치려 한다는 이야기는 흥미롭다. 아마도 연담의 글을 연경에 보내 그곳의 명사들에게 보이고 서문을 받으려 했던 듯하다. 이와 관련된 편지가 한 통 더 있다.

그대의 오랜 고생을 생각하면, 마치 정위精衛가 나무와 돌을 물어 옮긴 일과 같으니, 그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네. 이제 보내온 편지를 받고서 집에 돌아왔음을 알게 되니, 서로 만난 것처럼 기뻐네. 또 서울에 올라가려고 한다던데, 이렇게 찌는 듯한 무더위에 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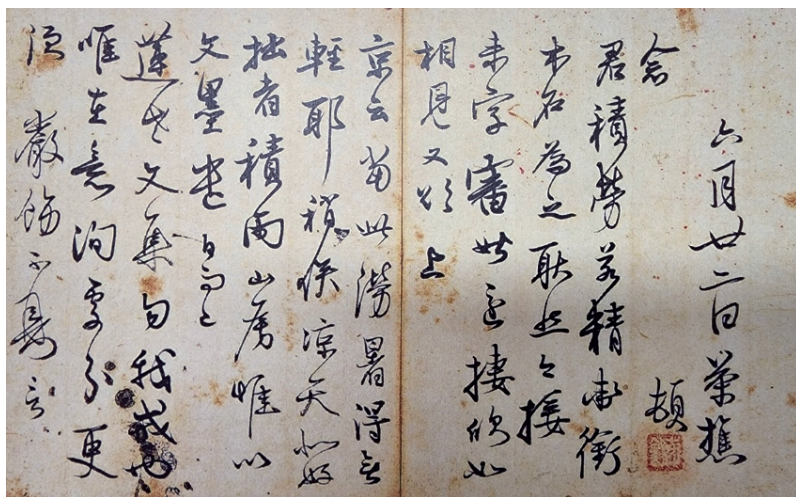


그림 8: 6월 22일 편지

무 경솔한 게 아닌가? 날씨가 조금 서늘해지길 기다려 봄이 좋을 듯하네. 나는 장마비 내리는 산방山房에서 오직 문묵文墨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뿐이네. 연로蓮老의 문집은 날 닷하지 말게나. 오직 의순意恂에게 달렸으니, 곧 다시 엄하게 닦달하게나. 이만. 6월 22일, 다초茶樵 돈頓.¹⁴⁾

피봉도 없고, 보낸 해도 나타나 있지 않지만 완호에게 보낸 편지와 비슷한 시기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연담의 문집을 정리하는 일과 관련된 내용이다. 다음은 비교적 이른 시기의 편지다. 1780년에 쓴 것이니 다산 19세 때이다.

14) 念君積勞, 若精衛銜木石, 爲之耿然. 今接來字, 審姑還接, 欣如相見. 又欲上京云, 當此滂暑, 得無輕耶. 稍俟涼天, 似好. 拙者積雨山房, 唯以文墨遣日而已. 蓮老文集, 勿我戒也. 唯在意恂處, 即更須嚴飭. 不具言. 六月廿二日, 茶樵頓.

초여름에 내려주신 편지가 지금까지도 위안이 됩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니 그리운 마음이 더욱 간절합니다. 요즘 몸과 마음이 평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운 마음 어찌할 바가 없이 간절합니다. 저는 여름 석 달에 두 형수의 상을 거듭 만났으니,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마음이 이미 너무나 아프고 쓰리며, 부모님의 가래 끓는 병환은 추위를 만나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공무로 바빠져 보살필 수가 없으니, 저의 답답함은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여기 보내는 병록病錄은 양근楊根에 사는 권權씨 어른이 부탁한 것인데, 저 또한 일찍이 이분에게 수학하였고, 사랑하는 마음이 골육지간과 다를 바가 없기에 이렇게 외람됨을 무릅쓰고 부탁드립니다. 꼭 시말을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 날 심사숙고하여 약명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아끼시는 마음만 믿고 이처럼 번거로운 부탁을 드렸으니, 어찌 마음속에 송구한 생각이 없겠습니까? 다시 바라옵건대 제발 헤아려주시어 저의 병처럼 여겨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있으니, 굵어살피시고 회신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병록은 받아온 지 이미 오래니, 빨리 회신해주시기를 또한 바라옵니다. 나머지는 계절에 따라 편안히 잘 지내시기를 바라며 갖추지 못합니다. 굵어살피주시리라 여기며 삼가 안부 여쭙는 편지를 올립니다. 경자(1780) 복월(11월) 이십사일, 시생 정약용 절을 올립니다.¹⁵⁾

15) 初夏下覆, 至今伏慰. 居然歲暮, 瞻仰益勤. 伏惟比來, 靜養氣度, 神相安福. 伏湊不任區區. 侍生夏三朔之內, 荐遭兩嫂之喪, 侍下情理, 已極慟毒, 而家親疾患, 遇寒添劇, 而公務煩擾, 不得調養, 私悶何喻. 就白, 此去病錄, 卽楊根權丈之所托, 而侍生亦嘗受學於此, 情愛無異於骨肉之間, 故玆冒猥越之罪而仰瀾. 幸須詳覽始末, 多日沈思, 下示藥名, 如何. 徒恃眷愛, 如是煩瀆, 而安得無悚蹙于中. 更望千萬下量, 視猶侍生之病, 如何如何. 其詳在別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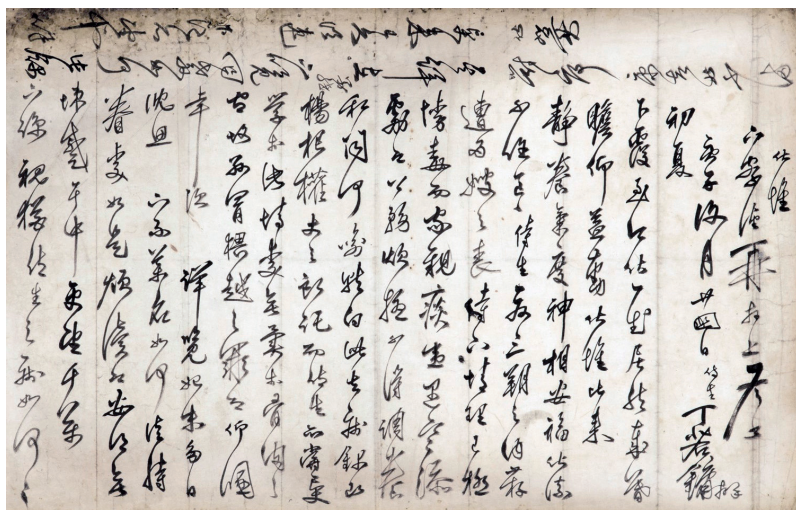


그림 9: 1780년 11월 24일 편지

양근에 살던 권씨 어른이 부탁한 병록病錄을 자세히 살펴보고 처방을 내려 달라는 내용이다. 피봉이 없어 수신자는 알 수 없지만, 젊은 시절 다산의 서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눈길이 가는 편지이다.

3.

『여유당전서 미수록 다산간찰집』(2)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이 기꺼이 자료를 보내주셨다. 특히 정민 선생님은 기존에 저술에 사용한 편지의 원본 사진들을 보내 주셨다. 경매회사, 개인 소장자, 박물관에서도 기꺼이 자료를 제공해 주셨다. 그렇게 60통의 편지가 수집되

下覽回教如何. 此錄受來已久, 從速下送亦望也. 餘伏冀對序康吉, 姑不備. 伏惟下察, 謹再拜上候書. 庚子復月廿四日, 侍生丁若鏞拜手.

었고, 지난 1년간 매월 1회씩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 탈초와 번역을 위한 강독을 하였다. 지금은 그렇게 읽은 자료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다. 이제 모두 180통의 다산 간찰이 새롭게 수습되었지만, 아직도 수습을 기다리는 자료가 많이 있을 것이다. 언제 다시 증보를 위한 작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다산의 간찰을 발굴하고 정리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산간찰자료집'으로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